

[부활절 전도집회 - 첫째날] 기다리시는 아버지

[본문] : 누가복음 15 : 11 ~ 32 / 라준석 목사 / 1999

아버지와 아들

얼마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목은 “시내 한 복판에 연기나는 굴뚝” 이었습니다. 큰 빌딩이 준비하게 늘어선 시내 한 복판에 아직도 장작을 때며 사는 노부부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날 동네에 온 써커스단을 따라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혹시 그 아들이 연기를 바라보고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지금도 굴뚝에 연기를 내고 있다는 사연입니다.

성경책은 두껍습니다. 한번 읽으려면 하루에 10분에서 15분 동안 읽어도 1년은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을 꼭 짜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전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본문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재산을 달라고 했고 며칠 후 자기 몫을 챙겨 둘째 아들은 떠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는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고, 그 아들이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은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번 곳을 바라보는데 아들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은 준비했던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이것이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다. ‘집나간 아들’은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군가를 가리킵니다. ‘큰 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먼저 ‘아버지’가 있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아로 산 사람일지라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전혀 몰라도, 아버지의 함자나 취미, 식성 등으로 몰라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라면 계시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당신을 있게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먼 데 계시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버지”라고 말하면 “어, 그래”라고 대답하실 정도로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태양을 만들 수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예쁜 꽃들을 만드셨습니다.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릅니다. 이런 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저희 집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바로 개구리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개구리 알을 40일 전에 분양을 받아왔습니다. 잘 키워주면 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구리를 알에서부터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알이 조금 지나니까 올챙이가 되었습니다. 올챙이가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더니 꼬리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꼬리가 짧아지는 기간 중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개구리의 모습으로 여항 속에 있는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두꺼비가 아니었습니다. 꽃게도 아니었습니다. 금붕어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알이 시간이 지나더니 개구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이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이것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새와는 다르게, 물고기와는 다르게, 인간과도 다르게 만든 분이 계십니다.

꽃도 아름답고, 새도 아름답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더욱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혈을 기울

여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되는대로 살다보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인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은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고 조건에 관계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곁에 서계십니다. 여러분을 요모조모 따져서 독특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만드신 분이 그대 옆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

두 번째로 13-17절을 보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아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궁핍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있게 떠났습니다. 독립을 선언하고 천하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거기서 허랑방탕'했습니다. 마음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았는데 아버지의 눈을 벗어난 아들은 마음대로 살았지만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아들에게는 자유가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빈털터리였습니다. 천하를 얻은 것과 같았지만 계산해 보니 결국 빈털터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산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 건강, 친구,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떠나갑니다. 결국은 혼자입니다. 따져보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 혼자 남게 되는지, 언제 빈털터리가 될 지 시간문제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떠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의 결국은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떠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의 결국은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태양을 보고 절을 하는 사람은 옆집 아저씨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달을 보고 절을 하는 사람은 옆집 아빠를 보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큰 바위를 보고 절을 하는 사람은 남자도 아닌 옆집 아줌마를 보고 아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이 궁핍하지만 원가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정말 힘들어 어려워서 원가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아들은 마음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

의 돼지를 치게 됩니다. 독립하려 했으나 다시 매이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짐승만도 못한 단계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윤리도 소용없습니다. 죽이고, 속이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신세한탄을 합니다. 탈출구는 하나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는 따지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거리가 먼데도 달려가 측은히 여겨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신기한 것은 아들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아들의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아들을 안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상상이 갑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애들아 잔치를 베풀라. 저 사람이 돌아왔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실 때 사람을 보내어 놓고 기다리십니다. 가족을 여러분에게 보내십니다. 저에게는 선배를 보내 주셨습니다. 고1 때 제 선배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딱 한 마디를 했습니다. “너, 교회 다니지 않을래?”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불교신자라서 교회에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희안하게도 그 선배의 말 한마디가 제게 남아있었습니다. 하루는 방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너무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교회에 가게 해주세요’ 고모네서 하숙을 할 때 고모가 식사 기도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하셨던 기억이 나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2 때 선배와 친구를 보내셔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교회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고3 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간지 1년 4개월만에 저희 집안이 다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제 친구를 통해서, 제 선배를 통해서 저를 찾으셨고, 저를 통해서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여 믿기 어렵지만 진리는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아주시며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때부터 꿈이 바뀌고, 바라보는 것이 바뀌고, 존경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저를 통해 여러분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가십시오. 그분에게 가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구분에게 사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